

집값 상승 기대...주택연금 가입 증가세 주춤

광주 수완지구에 2억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김모(61)씨는 지난해 노후생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라는 생각에 주택연금을 가입하려다 잠시 보류하기로 했다. 물가는 계속 치솟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는 상황에서 연금에 가입할 경우, 수령액 상장에 시세가 반영되는 만큼 매달 지급되는 연금액에 손해를 볼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김씨의 경우 현행 지급기준대로라면 월 58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집값이 몇천만원이라도 오르게 되면 실제 월 수령액에 수십 만원을 더 받을 수도 있다. 김씨는 “조건이 완화돼 부부 모두 60세 이상에서 주택소유자 한 명만 60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게 돼 지난해 가입하려고 했지만

가입 대상자들 관망세로

광주·전남 작년 147명

증가율 17%로 떨어져

집값이 어떻게 될지 몰라 망설이고 있다”며 “올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난다고 하니 시세가 좀 오를 때까지 기다려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집값 상승과 하락에 따른 주택연금 수령액의 차이를 우려해 주택연금의 가입 시기를 늦추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광주지사에 따르면 광주와 전남의 주택연금 가입자는 지난 2007년 7월 출시 이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2011년 75명, 2012년 125명에서 지난해 147명으로 상승세(17.6%)가 주춤했다. 이는 지난해 전국 총 가입자 증가율 5.6%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지만 출시 이후 60세 이상 고령(월 지급금)은 23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70세를 기준으로서는 무려 33만원으로 크

? 주택연금
만 60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역모기지론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취급한다.

이와 관련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등 부동산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일면서 가입 대상자들이 가입을 미루다 보니 다소 주춤한 상황으로 ‘관망’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광주와 전남의 평균 집값이 타지역에 비해 낮은 것도 고령자들이 가입을 꺼리는 요인 중의 하나다. 집값이 2억원과 3억원으로 1억원 차이가 있을 경우 60세 기준 연금(월 지급금)은 23만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70세를 기준으로서는 무려 33만원으로 크

게 벌어진다.

하지만 주택금융공사는 현재 주택가격이 오르는 쪽은 적은 반면 기대수명은 늘어나고 금리 인상의 가능성도 커지는 등 연금 수령액의 감소요인이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가입을 서두르는 게 유리하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올해 주택연금 신규 가입자의 수령액은 지난해보다 연금산정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평균 0.6%, 최대 1.29%까지 줄어 들었다.

광주지사 관계자는 “단순 주택시세 뿐만 아니라 수령 등 다양한 기준으로 수령액이 결정되는 만큼 빨리 가입하면 할수록 수령액이 늘어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선운2차 ‘EG the1’ 562가구 분양

라인, 선운지구에...견본주택 광천동에 개소

㈜라인이 21일 광주 선운지구에 선운2차 ‘EG the1’(이지더원) 견본주택을 개소하고, 562가구를 분양한다.

선운지구의 유일한 브랜드타운을 자랑하는 EG the1은 3.3m당 600만원 대의 부담스럽지 않은 분양가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 환경, 교통의 3박자가 갖춰진 뛰어난 입지조건을 갖췄다.

특히 전용면적 72㎡ 최초로 방 4개 구성의 혁신적 설계를 선보였다. 지금까지 방 4개의 평면 구성은 중대형 평형대어나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 전문가들의 지적이었던, EG the1에서는 가변형 벽체를 설치할 경우 방을 4개까지 늘 수 있는 혁신적인 설계를 완성했다.



광주 선운지구 EG the1은 지난해 분양이 완료된 1차와 이번 2차 분양의 562세대를 더해 총 1250세대의 대규모 브랜드타운으로, 선운지구에서는 앞으로 볼 수 없는 최대 브랜드 대단지로 완공될 예정이다. 선운초등학교와 선운중·고등학교, 호남대학교가 인접해 있는 명품 교육환경을 자랑한다. 견본주택은 광주시 서구 광천동 60번지에 있다. 문의(062-368-8833).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현장밀착경영으로 경영정상화 속도”

이재영 LH 사장 광주전남지역본부 방문

이재영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20일 광주전남지역본부를 방문, “LH 경영정상화 원동력은 현장에서 나온다”며 “경영정상화의 차질 없는 이행을 현장밀착경영에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4일부터 전국 24개 현장을 찾아가며 현장경영에 나선 이 사장은 이날 광주전남본부에서 지난해 전국 고객만족도 1위의 성과를 달성한 것을 축하하는 한편, 공사 경영정상화를 위해 판매 촉진 및 사업성 개선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사장은 “민간-공공 공동개발, 대항개발, 임대주택리츠 등 새로운 사업방식은 LH가 미래에 나아가야



할 길이므로 전향적인 생각과 적극적인 자세로 추진해야 한다”며 “광주전남 지역본부도 빛그린산단 대항개발 등 새로운 사업방식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이 “LH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국민이 느끼는 불편함을 해소해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받는 신뢰의 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광주전남본부 전직원의 노력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이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광주상공회의소는 20일 오후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볼룸에서 강운태 광주시장과 권오봉 전남도 경제부지사, 조호관 광주시의회 의장, 지역 국회의원 등 각급 기관·단체장과 지역 상공인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회 광주상공의 날 상공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지역 발전·일자리 창출·규제개혁 앞장”

박홍석 광주상의 회장



“광주가 수출도형 첨단산업도시로 자리매김 한데는 상공인들의 굳은 땀방울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광주상공의 날은 이런 지역 상공인들의 소통의 한마당이 될 것입니다.”

20일 제2회 광주상공의 날 행사를 개최한 박홍석(69)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은 “광주상의 경제가 나날이 도약했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광주은행 총자산은 21조 2000억원으로 2012년 말 20조 2000억원 대비 1조원 상당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이익의 감소 및 건전성 강화 차원의 대손충당금 증가로 610억원으로 확정됐다.”

를 확산하기 위해 상공의 날을 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광주상공대상을 제정할 것도 지역 기업인들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비롯됐다”고 덧붙였다. 2012년 제21대 광주상의 회장에 취임한 박 회장은 광주상공의 날 제정 외에도 지역경제를 위해 중앙과 지방을 잇는 가교 역할을 맡고 있다.

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중앙정부보다는 지방정부의 권한을 넓히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며 “광주와 전남은 산업은 물론 문화와 관광 인프라가 훌륭해 정부가 의지만 갖는다면 발전 잠재력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주상의는 지역경제 발전의 기반을 닦기 위해 6대 광역시 중 가장 빨리 맞춤형 인력양성사업을 시작했다”며 “단순한 상공인의 모임에서 벗어나 기업인의 애로사항 청취와 일자리 창출, 규제철폐를 위해 최일선에서 뛰는 조직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임동률기자 exian@

광주은행 상임감사 한복환 금융위 심의위원 선임

광주은행 상임감사로 한복환(60) 금융위 금융발전심의회위원이 선임됐다.

광주은행은 20일 광주은행 본점 이사회실에서 제55기 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위원후보추천위에서 추천한 한복환을 임기 3년의 상임감사로 신규 선임했다. 한 감사는 충북 청원 출신으로 청주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1973년 한국은행에 입행, 금융계에 첫발을 디뎠다. 금융감독원 선임감사, 신용회복위원회 사무국장, 금융감독원 총무국실장, 광주은행 상근감사(2007~2008년), 신협중

양회 신용·공제사업 대표이사 등을 역임했다. 임기가 만료된 노부호·김대송 두 사외이사는 1년간 유임됐다.

이날 주주총회에선 제55기(2013년 1월 1일 ~ 2013년 12월 31일) 재무제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의결됐다. 이에 따라 2013년 말 광주은행 총자산은 21조 2000억원으로 2012년 말 20조 2000억원 대비 1조원 상당이 증가했다. 당기순이익은 저금리 기조로 인한 이자이익의 감소 및 건전성 강화 차원의 대손충당금 증가로 610억원으로 확정됐다.

/홍형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코스피지수	코스닥지수	금리(국고채 3년)	원·달러 환율
1919.52 (-18.16)	541.79 (-0.46)	2.87% (+0.04)	1076.20원 (+5.70)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23년 가발명가!

타사제품 A/S 및 관리 환영

신제품 기적공인가

59만원

특수가발 별매(윈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X,핀X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大山프리모가발

www.guemyong.co.kr

이웃 갈등 원인 해결!!
층간소음 방지 바닥재
오리지널 영국 제품
인스타레이

국내최초 경량,중량 충격음 기준통과

층간소음 전용 바닥재 InstaLay®

뛰어난 열전도성,충진 중량 충격음 방지,다양한 바닥재 연출, 앞맞는 쿠션기능으로 피로방지 및 내구성이 보장되는 새로운 개념의 신기술 - 바닥재 시스템

NAVER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는 바닥재

주택시공기준	경량충격음 58dB이하 중량충격음 50dB이하
수인한도기준	주간 40dB이하 야간 35dB이하

강화마루, 온돌마루, 모노층, 테코타일(석사라형), 테코타일(점사라형)

(주)금용건설 InstaFloor

전국 시,군,구지역 대리점 모집
문의전화 062-575-9082